‘푸른 희망’ 사라지고 ‘붉은 배추밭’ 절망만

르포-태풍 피해 시름 가득한 해남 배추밭 가보니

뿌리까지 썩어 수확 포기
해남 재배면적의 41% 피해
영양제 투입해도 유명무실
김장철 앞두고 깊은 한숨
“농사 수십년…이런 피해 처음”

“배추 농사만 30년 넘게 했는 디, 올해 같은 피해는 처음이여. 단 한포기 못 건질 판이여. 뿌리까지 썩어 문드러졌당께!”

지난 18일 오후 찾은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이천문(73)씨의 배추밭 1만3223㎡(4000평)에는 푸른 색 배추는 온 데 간 데 없고 붉은 색 흙만 가득했다. 그나마 듬성듬성 남아있는 배추 역시 병충해로 밑동까지 썩어가고 있었다. 주변 배추 밭도 상황은 마찬가지.

평소 이맘때면 생육의 절반 이상 진행된 푸른 색 배추들이 이랑이 안보일 정도로 자라 밭을 가득 메우고 있어야 하지만, 연이은 태풍 피해로 배추의 성장이 멈춘 탓이다.

해남 배추는 수확철이면 장비를 이용해 뿌리를 잘라내야 할 정도로 전국 최고의 단단한 품질을 자랑하지만,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이씨의 배추는 가볍게 발로만 툭 차도 뿌리가 뽑혀 나갈 정도로 썩어서 상품성이 없는 상태였다.

지난 8월 말께 4000평 규모의 자신의 배추 밭에 1만여 개의 모종을 심었다는 이씨는 “내 나이 칠십이 넘도록 한해에 태풍을 세 번 맞긴 처음”이라며 “너무 속상해 배추 밭을 처다 보기도 싫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9월과 10월 전남을 덮친 세번의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해남 배추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전국 배추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해남 배추 농가들이 잇따라 수확을 포기하면서 올 김장철 배추 값도 폭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태풍 미탁 등으로 해남 지역 전체 배추재배면적 4313ha의 41%에 달하는 1765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해남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농가 지원에 나섰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농가들의 피해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남지역 가을배추 생산량은 38만 1000t이었지만 올해는 연이은 태풍과 잦은 강우로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전년대비 15~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이은 태풍피해로 해남산 가을배추의 생산량도 많게는 6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남 배추농가들은 특히 태풍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만해도 지난해와 달리 올 배추가격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던 터라 실망감이 더욱 큰 분위기다.

실제 지난 4일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 거래 가격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 기준 7031원에 그쳤던 배추가격은 올해 1만 8582원으로 2.6배 넘게 상승했다. 이는 전년 배추 가격 폭락 등의 영향으로 배추재매 면적이 크게 줄어든 탓이라는 게 배추농가들의 설명이다.

해남의 한 배추 농민은 “절임배추용인 해남가을 배추는 생육기간이 120일 전후로 대부분 8월 말께 밭에 심는데, 뿌리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인 9월 들어 태풍 ‘링링’과 ‘타파’가 덮치면서 뿌리가 흔들리는 뿌리돌림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10월 들어 태풍 ‘미탁’이 강풍과 함께 200㎜ 이상의 집중호우를 쏟는 바람에 배추의 뿌리에 수분이 과포화됐고, 뿌리기능이 상실돼 수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남지역은 9~10월 두달 간 491.8㎜의 강우량과 17일의 강우일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는 피해를 입은 해남 배추농가에 영양제 지원 등을 검토중이지만, 이마저도 이미 무름병, 뿌리혹병, 바이러스성 질병 등이 창궐해 영양제 투입도 유명무실하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배추 농가들의 피해가 너무 커 걱정”이라면서 “농협 등과 협의해 배추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해남=글·사진 김민석 기자 mskim@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한 농민이 지난 18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배추밭을 살펴보고 있다. 9~10월 연이은 태풍으로 해남지역 배추밭 1765ha가 피해를 입었다.

‘수은 중독’ 남영전구 노동자들 4년만에 배상

광주지법, 손배소송 화해 권고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수은 중독 사태〈광주일보 2015년 10월 13일자 6면〉의 피해 노동자들이 4년만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최근 노동자 6명이 남영전구 광주공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다. 피해자들과 사측 모두 화해 권고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권고안은 확정된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측은 마지막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남영전구 측이나 노동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권고한 배상 규모는 원고 측이 청구한 액수의 3분의 1 수준이다.

남영전구의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일용직이었던 이들은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제조시설 철거 작업을 위해 투입됐다가 수은에 중독됐으며, 작업 후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불안장애, 뇌 기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회사 대표와 책임자들은 철거 현장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강경진압 거부 경찰 명예회복 ‘속도’

경찰청, 故 이준규 목포서장·경찰 20여명 징계 취소 절차

경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경진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초를 겪은 경찰들에 대한 명예 회복〈광주일보 2019년 10월 14일자 6면〉에 속도를 내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경찰청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다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취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지난 11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21일 인사담당관실에 ‘파면 취소 징계 변경 임용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서장에 대한 징계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특진 추서도 검토하고 있다.

옛 보안사령부는 1980년 5월30일 ‘직무유기 경찰관 보고’ 문건을 작성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이 서장을 자위권 행사 소홀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조사’를 건의한 뒤 즉시 승인이 났으며, 이 서장은 파면 후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고문당한 끝에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사망했다.

경찰청은 이 서장을 비롯한 5·18 당시 무기매몰·은닉지시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찰관 20여명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5·18단체와 관계자들은 명예회복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족, 5·18연구자 등은 현재 경찰청을 상대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1980년 6월19일 작성한 ‘광주 사태와 관련된 문책대상 경찰관 조치’에 나온 안수택 전남청 작전과장·양성우 전남청 경무과장·김상윤 나주서장·김희순 영암서장(이상 총경), 안병환 화순서장(경정), 이정방 전남청 장비계장·이윤권 화순서 경무과장(이상 경감) 등 5·18 직후 직위 해제·파면·의원 면직을 당한 총경급 이상 간부 13명, 감봉 등 징계를 당한 직원 64명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연합뉴스

2억대 뇌물 받아 군수에 전달한 공무원 강등 처분 정당

2억원대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급계약 체결 업자와 브로커 등으로부터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뇌물 2억 2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이 전 군수에게 상납하고 일부 현금다발은 김치통 등에 담아 집에 보관하다가 검찰이 관급비리 수사에 들어가자 자진 신고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1심 선고 후인 지난해 11월 A씨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감형 후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전남도는 지난 1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변경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안 주택 텃밭서 수류탄 등 무기 수십 점 발견

무안의 한 주택 텃밭에서 수류탄 등 인명살상 무기 수십 점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무안경찰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의 한 주택 텃밭에 폭발물이 묻혀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다.

군과 경찰은 합동으로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텃밭을 수색한 끝에 수류탄 4점·미상탄종 22발·탄창1점 등 인명 살상 무기와 낙하산 신호탄 16점·연막수류탄 5점 등 군용품 총 17종 79여 점을 발견했다. 경찰과 군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발견된 물품들은 육군 EOD(폭발물 처리반)에 넘기고, 사건을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무기가 발견된 텃밭은 2년 전 전역을 한 예비역 중령 A(51)씨의 소유로 확인됐으며, A씨는 경찰조사 등에서 군용품을 반출해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헌병대는 A씨를 상대로 군용품 절도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군용품 출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술 취해 택시기사 성추행한 30대 여성 승객 ‘징역형’

쌍나팔

○…광주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30대 택시운전기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가 징역형.

○…20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남준)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하순 새벽 3시께 광주의 한 상가 밀집지역에서 택시 뒷좌석에 오른 뒤 이상한 소리를 내는 등 성적인 표현(?)을 하다, 택시운전기사 B씨의 “이러지 말라”는 제지에 한술 더 떠 상의를 벗고 차량 앞 조수석으로 이동해 5분여 동안 B씨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는 것.

○…B씨의 112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여성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들이 여성승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가 되레 무고성 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해 112 신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성승객이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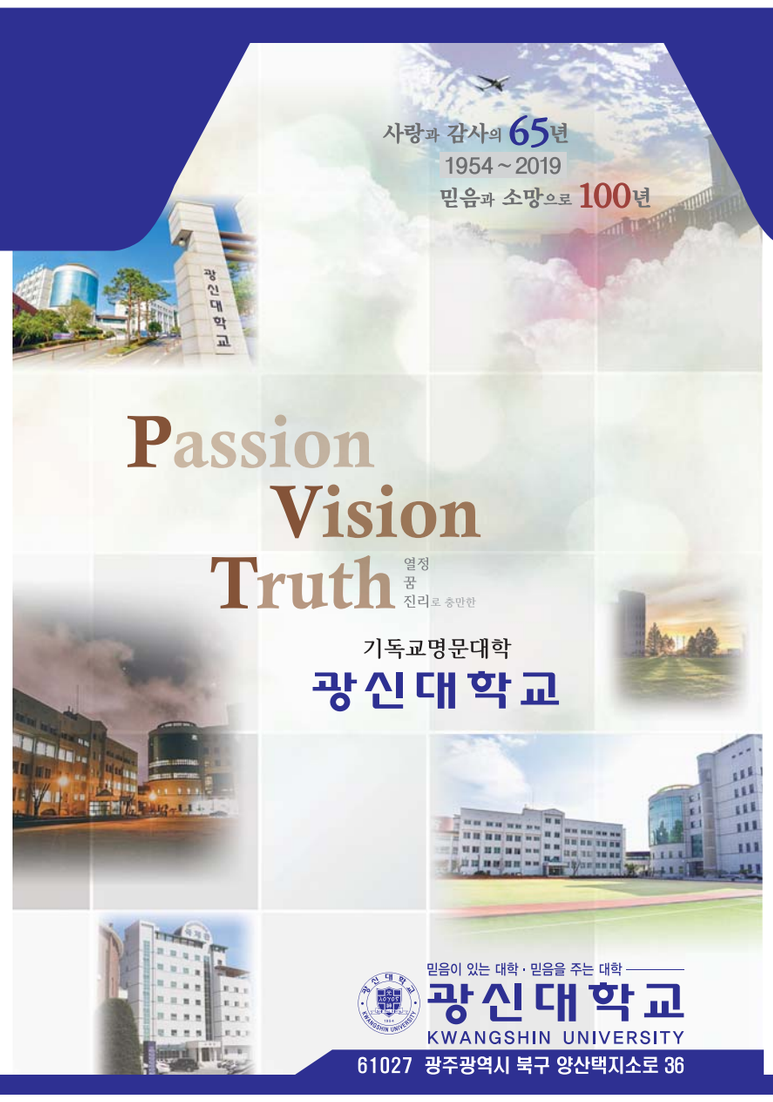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정시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 용음악학 전공)	5
총계		28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9. 12. 26(목) ~ 31(화)
· 전 형 일 :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7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치료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